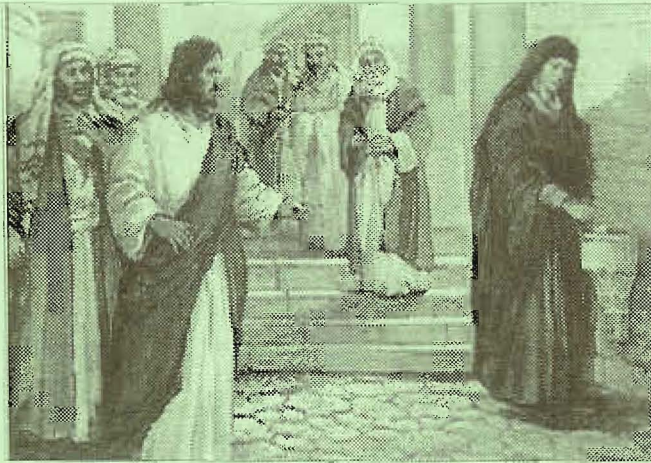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위령의 달 · 연중 제32주일
제32권 50호(나해) 2012.11.11

[묵상]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계십니다.
뭐 하시냐고요?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알아 봤으면 하는 마음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건 예수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감추고 싶지만
하느님께만 보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주십니다.
풍족한 가운데 얼마씩 넣은
많은 부자들의 큰돈 보다는
궁핍한 가운데 아낌없이 봉헌한
가난한 과부의 보잘 것 없는 금액
금액의 크고 작음을 보시지 않고
봉헌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풍성한 봉헌
그 봉헌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마음이라고
그 마음속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주간행나눔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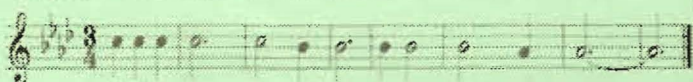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귀영 & 권순기
특전미사	(생)김행선 올리아나, 김병조 마틴, 이근모 마리오, 이영진 레오날드, 김태희,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전시웅 요한, 이진행 힐라리오, 이경용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김풍길 바오로, 박영춘 안토니오, 박순용 요안나, 김종환 야고보, 정삼선 & 황기진, 최부금 로사, 강덕상 켈마, 안준환 미카엘과 조상님들, 강래봉, 연옥영혼들, (생)이윤조 글라라, 김세니 클라라, 엄효정 모니카, 정미영 미카엘라 가정, 이근모 마리오, 지재환 프란치스코 & 김린다 안나, 전해운 조세피나, 전진웅 그레고리, 브레트 맥거크, 김행선 올리아나, 최기남 야고보,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권(1 Kings) 17,10-16

화답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9,24-2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마르코(Mark) 12,38-44<또는 12,41-44>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 사슴	176	217
봉헌	378	261	270
성체	361	284	304
파견	찬양하세	346	19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하느님 말씀과 축복 예식서

교회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들과 신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축복의 행위는 그 자체로 고립될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전례 생활에 적절한 정도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은 “하느님의 말씀 선포에서 그 뜻과 효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참된 거룩한 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 역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마태 4,4 참조) 일깨우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온전한 전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과 구체적 제의들

64). 전례와 하느님 말씀의 관계와 관련한 몇 가지 기본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마치며, 이제는 하느님의 백성이 전례 행위 또는 이와 연관된 경우들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더욱 친숙해지게 하기 위하여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이 추천한 제안과 제의들을 요약하고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가) 말씀 예식

65).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모든 목자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공동체들에서 말씀 예식을 전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탁월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은 신자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전례 사목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식들은 특히 주일의 성찬례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중요하고, 특히 주요 전례 시기인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에 신자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독서집의 풍요로움을 더 깊이 맛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말씀 예식은 특히 성직자의 부족으로 주일과 의무 축일들에 성찬의 제사를 거행할 수 없는 공동체들에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에 이미 제시된, 사제가 없을 때의 주일 집회에 관한 지침들을 염두에 두고, 관할 권위들이 개별 교회들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 예식 지침서들을 준비하기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우에 신자들의 신앙을 길러 줄 수 있는 말씀 예식을 장려할 수 있겠지만, 이를 성찬례 거행과 혼동하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집회는 하느님 뜻대로 거룩한 사제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탁월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순례 때와 특별한 축일들, 대중 선교, 피정, 특별한 참회와 보속과 용서의 날들에도 말씀 예식을 권고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화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르 12,38-40) 예수님께서서는 극도로 화가 나셨고, 적당히 욱을 섞어가며 화를 폭발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중요한 대상 가운데 한 부류는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파렴치한 두 얼굴의 종교지도자들입니다.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족속,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자,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그리고 뱀”(마태 23,1-36 참조)등의 단어를 사용하시며 욱을 퍼부으십니다. 노기를 띠시며 ‘위선자’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현대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감정 표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으셨으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혐오스러운 어떤 일을 보시면 가차 없이 꾸짖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 내십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극도로 화를 내시는 장면과 그 외에도 여러 다른 곳에서 화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마태 11,20-24; 12,9-14; 21,12-14 참조) 그리고 화가 나셨을 때는 절대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으셨으며 엄하게 꾸짖으시고 가혹할 정도로 책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친구

들에게 욱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시기도 했으나 화를 내실 때는, 적당히 욱을 섞어가며 가차 없이 열불을 토하셨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는 베드로가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유혹할 때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라고 꾸짖으시는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보셨을 때 그 불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 결코 엉뚱한 사람을 지목하며 화를 내지 않으셨고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목하셨지 엉뚱한 다른 제자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사이파들이 화나게 했을 때 제자들에게 화풀이한 것이 아니라 바리사이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화가 몹시 나셨을 때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서 책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지 어떠한 사람에게는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

다. 거룩함을 실추시키지 않으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화를 내셨고 그것을 통해 당신께서 온전한 인간임을 드러내셨으며,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감정의 폭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역시 거룩하시며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느끼고 적절하게 표현할 때 화내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구로2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당	신덕래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꼬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박희자 마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11월 위령 성월

◆ 제31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주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하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 일시 :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연합미사
- 주례사제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 2부행사 : 오후 1시, 각성당별 경합 '우리성당 스타일'
강남스타일 패러디 혹은 각본당만의 독특한 스타일 표현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롱비치)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성 라파엘 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 행사당일 오전 9시30분까지는 공원주차 무료 및
모자도 무료증정합니다.

◆ 제3회 본당 신부님배 각 단체별 족구대회

- 일시 : 오늘 주일(11일) 오후 1시30분, 농구장
- 대상 : 남- 양업회, 대건회, 배론청년회, 주일학교
여- 성모회, 자모회, 배론청년회, 주일학교
- 경기방식 : 단체별 남녀 각각 한팀 5명씩 총8팀 구성후
남성, 여성경기로 리그전 진행
- 경기후 맛있는 BBQ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추수감사절연합행사 각성당 댄스경연대회 출전 103명 교우모집

- 대상 : 주일학교학생과 전교우(본당 신부님·수녀님 참가)
- 연습 : 11월 18일(주일) 낮 12시30분 강당(단 한번 연습)
- 준비물 : 흰티셔츠, 청바지, 선글래스
- 주관 : 주일학교(당일 학생들 카풀 제공)
-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청소년분과장 ☎(310)408-1443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요셉회 11월모임 오늘주일(11일)로 임시변경합니다.

- 시간 : 낮 미사후 유아실
- 문의 : 김대우 비오 요셉회장 ☎(310)920-7647

♡마르띠노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1월11일(오늘주일)은 투르의 성 마르띠노 주교기념일로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
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축하 모임은 주일 낮 미사후 친교
장에서 있으며, 신부님께서 작년처럼 전신자들에게 맛있는 점심
을 쏘~시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 나누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당 신부님배 족구대회가 열립니다.

◆ 성모회 기금모금 판매

- 일시 : 오늘주일(11일), 친교장
- 품목 : 홈데이드 집된장/집고추장, 새우젓, 다시마 등
- * 문의 : 최길숙 요세피나 성모회장 ☎(310)738-4788

◆ 대림환 만들기

- 신청마감 : 11월 18일(주일), 선착순 30명
- 만드는 날짜 : 12월1일(토) 오전 11시30분 강당
- 재료비 : 추후 알림
- 문의 : 윤경옥 실비아 제대회장 ☎(909)557-7490

◆ 무료 독감예방주사 접종합니다.

- 일시 : 11월 18일(주일) 낮 12시30분~오후3시 강당
- 제공 : 헬스케어/수호천사보험(이정훈 안셀모)
- * 문의 : 사회복지분과장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 2012년도 마지막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24일(토) 오후 6시(10분전까지 모이세요.)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 세례 신청서 : 11월18일(주일)까지 제출(서류 사무실비치)
- 12월 세례일정을 11월로 임시 변경했사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11일(주일) :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전신자 친교점심
토런스 서2반:미역국/성모회:떡,과일,수육
주일학교(자모회임원 피자)
- 11월18일(주일) : 요셉회(소고기무국 전신자들에 대접)
주일학교(5학년 떡볶이)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교복	김기정	김병조	김선제	김양금	김영길	김옥보
	옥찬	우용	원모	원호	정웅	종렬	보숙
	나경희	박선희	박씨니	박인식	정희	종민	진주
	방정복	배기엽	석순영	송재훈	신경훈	엄지선	오명섭
	오신재	오일순	유근태	유영균	윤석구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자	이상석	이용식	이은록	이인두	이인석
	이종선	이형삼	이효세	장영우	전정일	정동호	정상문
	정열모	조소영	주대중	주영석	주영순	지경수	최수복
	최이원	최진수	홍광선	황인중	황학수	한길선	혜
	영희가보라	합계 : \$6,415					
미사헌금 : \$2,756		2차헌금 : \$930					

성전헌금	김교복	김기정	김병조	김선제	김양금	김영길	김옥보	
	우용	원모	원호	나경희	박선희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박현주	방정복	석순영	신경훈	엄지선	유영균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자	이상석	이은록	이인석	
	이형삼	이효세	장영우	전정일	정상문	정열모	주대중	
	지경수	최이원	최진수	홍광선	황인중	한길선	혜	
	영희가보라	합계 : \$4,274						
	감사헌금 : 김교복/김순희		리사이클링 : \$79.33					

공지사항

◆ 축하합니다!!!...배론청년회 성경퀴즈대회 종합우승

지난 11월3일(토) 오후 6시부터 이웃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열린 남가주한인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사진)에서 우리본당 배론청년회에서 출전사상 첫번째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트로피와 상금 \$500을 본당에 봉헌합니다.

(1위 : 백삼위, 2위 : 토마스, 3위 : 순교자)

* 배론 선수 : 최태훈 아오스딩, 박수진 보나, 이은지 수산나, 박지혜 수산나, 송민영 보나, 최보나 보나, 박수민 히메리오



◆ 성전 안에 음식물과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사 또는 특강,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먹던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비엔 회사에서 워터히터(보일러) 도네이션

시설분과위(김찬구 요한 분과장)를 통해 나비엔 회사에서 \$1,600 상당의 보일러 1대를 기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1일 점심과 차'

- 일시 : 11월17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렘픽)
- 메뉴 : 시골우거지백반
- 행사내용 : 메디칼과 메디케어 설명, 개인 건강상담
- 거라지세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라사 수녀

◆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기도과정 프로그램

- 매일 30분씩 14주 기도과정, 매일 1시간씩 9개월 기도과정
- 마감 : 11월30일(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CLC)
- 문의 : 정도로테아 ☎(818)764-8950

소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1/9(금) 오후 7시 북해루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막달레나, 욕울리아 539-3377 11/10(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신순철 가브리엘 494-1391 11/13(화) 오후 7시30분 <u>반미사</u>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충섭 마틴 533-1435 11/18(주일) 오후 5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인두 토마스 424-241-5988 11/17(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박명순 안나 968-7600 11/9(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남구역 합동 반모임 11/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합동 반모임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11/10(토)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켄마 818-640-3656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1/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77-0727 11/16(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678-8222 11/20(화) 오후 7시 <u>반미사</u>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병록 요셉 938-6807 11/6(화) 오후 7시 <u>반미사</u>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1/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구인

Paramounttariff.com (사무직 풀타임)

FMC.gov 규정에 따른 세계 유수의 회사임. 사우스

베이지역,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영주권자

* 이력서 e메일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

위령성월 유래와 죽음에 관한 교회 가르침

죽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

11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하늘 나라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성월이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난 그들도 지상에 남겨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는다. 산 자와 죽은 자가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위령성월을 맞아 위령성월 유래와 함께 죽음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알아본다.

☞ 위령성월 유래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구약 마카베오기에 나온다. 기원전 2세기 유다 민족 지도자인 마카베오는 전쟁터에서 죽은 유대인 장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헌금을 바쳤다.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네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2마카 12,45).

기원후 2세기께부터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신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교회 초창기 로마 카타콤바(지하묘지) 안에 새겨진 기도문에는 죽은 이들이 죄를 용서받아 천상 행복에 들게 해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교회는 이러한 기도 관행을 연옥 교리를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천국에 들기 전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는 상태를 뜻하는 연옥은 13세기 리용공의회와 15세기 피렌체공의회를 거쳐 1545년 트리엔트공의회에서 교회 공식 가르침으로 선포됐다.

한편 609년 교황 성 보나파시오 4세는 11월 1일을 모든 성인 대축일로 지정하고 교회력에 축일이 따로 없는 성인들까지 기억하도록 했다. 이후 998년 프랑스 클뤼니수도원 오딜로 원장은 모든 성일 대축일 다음날인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했는데, 이런 관습이 보편화되면서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게 됐다.

☞ 죽음에 관한 교회 가르침

그리스도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이 세상 삶을 마무리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판문이기에 적극적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죽음관이다.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인간은 △완전히 정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연옥 △하느님을 결정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 등 3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개별심판(사심판)에 처한 인간은 종말이 오면, 다시 말해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면 모두 부활해 최후심판(공심

판)을 받는다. 이때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악인은 단죄를 받게 된다. 종말의 시기와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 하느님만이 아신다.

죽음에 관한 가르침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먼저 인간은 죽어서 하느님을 만난다.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것을 체험한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심판이다.

연옥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하나 되기에는 부족한 인간이 생전에 죄를 지은 것이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하느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상태다. 인간은 연옥 상태에서 자신을 정화하며 하느님과 하나 됨, 즉 천국을 갈구한다. 연옥 영혼은 최후심판 때 구원을 받는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이다. 연옥 영혼들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미사, 선행 등으로 도움을 받는다. 이른바 통공(通功) 신앙이다.

천국은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누리는 총명한 기쁨의 상태다. 천국은 추상적 개념이나 하늘 위에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인격적 관계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성찬례와 자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살았던 사람이 죽는 순간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지옥은 하느님을 거부한 인간이 절망과 악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현세에서 천국을 맞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옥을 체험할 수 있다. 종말은 전적으로 하느님 일이다. 종말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뿐이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래도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만 싶은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죽음을 통해 참되고 아름답고 복된 새 생명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음의 고통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간혹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두렵고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요, 고뇌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할 것이다. 이것은 살고 싶은 인간 본성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결국 당신 사랑과 그 사랑이 베푸는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죽음에 대한 좋은 준비는 이웃을 사랑하며 나날이 이 믿음을 깊이 사는 것이다. "

◆자료<평화신문>